

창의성역량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안태욱 (군산대학교 창업전담 교수)*

이일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박재환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국 문 요 약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에서 사회진출을 하기 위한 진로 측면을 강조되어왔고, 최근에는 창업을 진로의 측면으로 강조하여 대학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창업을 자신의 진로 측면에서 선택하는 청년들은 비교적 적다. 정부의 주도로 대학 창업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창업의지와 학생 창업으로 연결되는 성과는 매우 낮다. 여전히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고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럼으로 창의성 역량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어떤 조절효과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8월 393개의 표본을 최종적으로 검증에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다. 그리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반면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에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조절효과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창업교육을 통해 창의성 역량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고 대학생들의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있는 연구결과 도출하였다. 따라서 대학들은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반드시 개설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창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창업교육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의미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핵심주제어: 창업교육, 창의성 역량, 자기효능감, 창업의지, 사회적지지(부모지지)

1. 서론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면서 대학교육에서는 창의성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교육이 확산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창의적 인재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국내 청년실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이 졸업 이후 취업이 안 되는 현상과, 일자리 부족현상, 일자리 미스매치 등으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대 학생들 가운데 가장 많은 고민은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Jin(2011)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여러 번의 직장과 직업을 가지게 되며 이동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일하는 방식과 일의 유형, 일터, 정형화된 일을 찾기 힘

들다고 밝혔다. 시대적 변화와 함께 직업에 대한 패러다임이 청년창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을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주입식 교육을 통한 정답이 있는 암기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사고로 창의성을 높이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교육으로 변모해야 할 것이다. 최근 우리는 고용 없는 성장과 역동적 직업세계의 변화로 전통적 진로개발에서 창의적 진로개발 모형을 요구하고 있다.

2017년 6월 청년실업률 10.5%¹⁾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높아지고 있는 청년실업과 함께 4차 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기 위한 대학의 노력은 지금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 주저자, 군산대학교 창업전담 교수, gyver003@hotmail.com

** 공동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조교수, lih2114@cau.ac.kr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jaypark@cau.ac.kr

· 투고일: 2017-09-11

· 수정일: 2017-10-16

· 수정일: 2017-11-09

· 수정일: 2017-12-26

· 게재확정일: 2017-12-30

1) 통계청 자료 : 2017년 6월 고용동향

세계경제포럼²⁾에서 발표한 <Educating the Next Wave of Entrepreneurs> 보고서에 의하면 세계 글로벌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성이 강조된 창업교육이라고 주장하며, 세계 국가들에게 창업교육을 도입하고 혁신할 것을 권고하였다(김경재, 2016). 따라서 국가의 미래와 개인적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 역량함양과 창업의지를 높이는 활동은 반드시 필요하다.

김문희(2016)의 연구를 통해 창업교육은 창의적 인재육성, 창의력과 혁신을 촉진, 창업, 협회 활동, 기업의 핵심인재활동에 필요한 역량함양 함께 소양도 키우는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질적으로 창업교육은 단순히 창업을 위한 실무 측면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아니다. 창의성을 높이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도전정신함양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기 위한 마인드와 태도 변화 교육을 포함한다.

한국교육개발원(2011)은 창의 인재를 위한 요소로 전문지식, 미래 핵심역량, 창의적 인성이라고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대학교육의 역할은 학생들이 이러한 요소를 함양할 수 있도록 혁신적 교육이 꾸준히 제공 되어야 한다. 대학의 가르치는 교육 내용과 운영 방향이 기존의 전통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대학을 운영하여야 한다. 특히 대학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확보, 교수와 학생의 기업가 활동을 장려하는 기업가 대학(Entrepreneurial University)의 형태로 변화하고 혁신하여야 한다(Etzkowitz, 2011).

또한 대학생들의 진로를 성공적으로 개척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대학생들의 경우 졸업 이후 직장과 직업을 찾기 전까지는 부모에게 의존하거나 경향이 높다. 대학생들에게는 졸업 이후 진로 설계를 할 수 있는 영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취업, 둘째는 연구와 공부를 하기위해 대학원 진학, 마지막으로 최근에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창업’이다.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도 진로를 설정하고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부모의 지지와 의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자녀의 발달과 교육에 부모의 지지로 인한 영향력이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Shartland et al., 1994).

부모의 지지가 대학생들의 진로고민에서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에서 창의성 역량에 대한 효과 검증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고자 한다. 최근 대학에서 창업교육이 확산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창의성 역량에 대한 효과검증이 필요하다. 또한 그러한 창의성 역량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실질적인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대학생의 진로 영역으로 창업의지 연구에서 부모 지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첫째, 창의성 역량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규명하고, 둘째,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증한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검증한다.

본 연구는 향후 대학의 창업교육 효과에서 실질적인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방법과 교육 정책수립과 방향성에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부모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창업교육을 통한 실질적인 청년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다.

II. 선행연구

2.1 창의성역량 교육

국가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타계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 육성이 시급하다. 최근 대학에서 창의적 인재 함양을 위해 창의역량을 핵심역량으로 선정하고 있어 창의성이 고등교육에 많이 부각되고 있다. 정부(교육부)에서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과 함께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에게 창의성 역량 함양을 위해 점진적으로 대학 창업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경화 외(2010)는 창의성 역량은 매우 중요한 핵심 역량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육을 통해서 함양되기 힘든 대표적 역량이라고 밝혔다. 창업활동은 기본적으로 한 나라의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Wennekers et al., 2005). 창업가의 특성과 역량에 대한 연구에서 창의성을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Morris et al., 2013)

창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단정적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창의성 개념은 연구대상과 연구의 관점에 따라 다르며 어렵고 복잡하다. 그럼으로 한가지로 정의하기 보다는 다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연구에 의해 분류하면 인지적, 정의적, 환경적 측면으로 통합이 가능하다.

Isaksen et al.(1993)는 창의성 연구를 시대별로 3가지로 크게 분류하였다. 첫째, 1950~60년대는 창의적 문제해결 모델에 대한 개발과 훈련 중심으로 강조되었다. 둘째, 1970~80년대 개인과 과정사이에 상호관계를 중요하던 때 이다.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부터는 맥락적인 관점을 추가해 광범위하고, 융통성을 고려한 접근을 중시하였다.

창의적 인재에 대한 정의는 창의적사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갖춰 새로운 대안과 구체적인 유용한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창의성은 크게 정의적, 인지적, 사회적 3가지로 구분된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과목에 대한 지식, 사고, 인성, 태도를 포함하는 것으로 창의성 특성과 함께 역량을 고려해서 정의적, 인지적, 사회적 측면으

2) 세계경제포럼 [World Economic Forum]: 전 세계의 저명한 기업인, 정치가, 학자, 언론인 등이 모여 세계경제에 관해 논의하는 권위 있는 국제민간회의이다. 독일 태생의 유대인으로 제네바대학 교수를 맡고 있던 클라우스 슈바브가 1971년 비영리재단 형태로 창설했으며,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NEW 경제용어사전, 2006. 4. 7., 미래와 경영)

로 정의된다(지은림·주연희, 2012). 따라서 본 연구의 창의성역량의 하위 항목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은 사회적(의사소통)요인에 의해 발휘될 수 있다. 창의성의 발휘되는 과정에서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 Vygotsky(2004)의 연구에서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개인 스스로의 내면에서 활동하는 정신적 요소에서 발휘되는 것이 아닌 서로 모르는 사람, 즉 타인과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 과정으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다. 또한 Piascik(2015)은 창의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효과적 의사소통은 상식적으로 비즈니스 영역 뿐만 아니라 일반 가족 관계 등,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방식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Lippl(2013)의 연구는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함께 공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둘째, 인지적 요인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창의적 사고(문제해결능력)에 대한 정의이다. Torrance(1974)는 창의성은 어려운 문제를 인지하여 해결하기 위해 가설, 다양한 아이디어 창출, 평가 검증, 재수정 과정을 거쳐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황성용(2013)의 연구에서 인지적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확산적 사고, 문제해결 능력 훈련에 집중하여 창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정적 측면에서는 창의성을 설명할 때 심리적 특성을 강조한다. 창의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제와 자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아이টে 몰입하는 흥미, 즐거움, 만족 등에 대한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Amabile, 1989). Kift et al.(2010)의 연구에서 그룹작업을 통한 협업 능력, 팀워크,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De Bono(1995)의 연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 본능 측면에서 창조와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영조 외(201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창업교육을 대상으로 창의성 역량을 크게 문제해결능력, 협력적 의사결정, 효율적 행동능력 3가지로 분류 정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 창업교육으로 창의성을 높이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필요한 창업가적 자질과 역량 함양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2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Zimmerman(2000)의 연구에서는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 과업을 잘 수행 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기효능감은 기업가로서의 과업과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개인적 신념의 강도라고 할 수 있다(Chen et al., 1998)

Bandura(1977)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정에서 필요한 행동과 실행하여 조직화 하는 자기 능력에 대한 신념이라고 정의하였고, 자기효능감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질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개념 자신감, 자기조절 효능감, 과업도전감이라고 주장하였다.

자신감(Self-Confidence)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성과와 결과를 도출 할 수 있다는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에 대한 확신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지된 능력,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강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과 신념으로 개인에 대한 가치와 자신의 역량과 능력에 대한 신념 정도를 말한다.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은 태어나서 청년기 까지 노출된 다양한 환경에서 획득한 숙달경험, 대리경험, 사회적 설득, 정서적 각성 등 네 가지 학습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대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 바람직한 영향과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서 통제하는 것은 필요하다.

창업교육에서 자기효능감은 과업달성에 도전하고 실패하며 좌절해보면서 다시 재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창의성을 높이고 불확실한 새로운 과업이 주어지면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자신감을 높이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전적인 과업과 구체적인 목표를 선호하는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이며(Latham et al., 1991).

반면에 자기효능감이 낮은 성향의 경우에는 위험한 상황을 회피하고, 편하며 조절 가능한 쉬운 과제만을 선호하며 선택하려 행동한다(Bandura, 1977). 자신이 어떤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조절기능이 필요하다. 즉, 자기-관찰을 통해서 또한 자기-판단 인지과정 뿐만 아니라 자기-반응을 통해 기본적으로 동기과정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라고 할 수 있다(Bandura, 1986; 1993).

김용호·김종근(2016)은 청소년의 신문화교육(NIE)이 기업가정신과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를 분석 활용한 선행연구로 의미는 있는 긍정적 매개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안태욱(2017)의 연구에서는 창의성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지만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요인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혔다. 박재환 외(2010)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이 비록 단기일지라도 피교육생의 학습동기기에 따라 자기효능감 향상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에 창업교육을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인의 효능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발달된 자기효능감의 신념은 창의성 역량교육과 창업의지 사이에 이어지는 주된 행동의 근원이 될 거라는 기대에 실증분석을 통하여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2.3 창업의지

국가적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과, 정부 차원에

서 청년 실업문제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창업분야를 육성하고 시점에 창업의지를 높이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Shapero(1984)는 침체된 국가와 지역 경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특유의 자기쇄신적(Self-Renewing), 회복력(Resilience) 특성을 갖추어야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창업의지를 가지고 있는 예비·잠재적 창업가들의 활동과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밝혔다.

창업의지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지만 창업하기 전에 예비창업자들의 창업에 대한 동기와 확고한 신념을 의미한다.

Shapero(1984)의 연구에서 창업의지에 대한 정의를 창업에 대한 자신의 관심정도, 흥미를 측정하는 지각된 욕구(Perceived Desirability), 개인적인 측면에서 창업에 대해 가능성을 느끼는 지각된 적성(Perceived Feasibility), 그리고 창업에 대한 행동성향(P propensity to Act)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창업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모델들이 많지만 창업의지에 연구를 살펴보면 설득 심리이론에서 창업이벤트 모델에서 시작한 Ajzen(1991)의 계획행동이론이 대표적이다. 그는 창업의지를 어떤 특정한 행위, 방법을 활용하여 도전하고 시도하는 노력과 의지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창업의지 모델은 창업이벤트 의지기본모델, 창업태도지향, 창업잠재모델, 데이빗슨 모델 등으로 발전 되었다.

유연호·양동우(2008)는 창업관련 전문교육을 받은 적극적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청년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기본지식 갖추고 교육을 통하여 창업의지와 성취를 높인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박재환·안태욱(2016)은 대학에서 전공만족도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창업교육의 특성과 창업의지 사이의 관계를 규명한 연구에서 전공만족도 낮은 집단에게 창업인프라 환경을 제공할 때 창업의지가 더욱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하였다. 즉, 전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진로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창업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창업의지를 높이는 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이우진 외(2013)는 대학 창업교육의 품질요인은 대학생들의 창업교육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창업의지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로써 창업의지에 미치는 다양한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진로 진출을 위해 실질적으로 청년창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업의지에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2.4 사회적지지

대학의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정부는 인식하여 교육부를 중심으로 각 대학마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며, 확산·보급하고 있다. LINC(산학협력선도대학)사업을 통

하여 교과 및 비교과(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제품 제작지원, 학생창업지원)프로그램들로 학내에서 지원 할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별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사회적 지지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자원이라고 하며 정서적, 물질적, 정보적, 평가적 지지를 포함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회인지 진로이론(Lent et al., 2000)에 따르면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지지는 자녀들의 진로에 관련 자기효능감과 흥미, 진로의지, 진로목표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경옥·조윤희(2011) 연구에서는 진로에 대한 연구를 한 결과 실제로 많은 대학생들이 본인의 진로에 관련해 부모나 중요한 타자와의 갈등을 경험하면 할수록 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결과를 밝혔다.

김재호(2013) 연구에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창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수준을 낮게 인식함으로써 창업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제도적 지원과 정서적인 지지가 마련되어 사회적으로 확산 될 필요성 있다고 주장하며 친구 이외에도 사회적 자원으로부터의 지지는 취업과 창업활동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중요한 자원이라고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의 선행을 연구를 살펴보면 류재윤·이유경(2012)의 연구에서 중·고등학교 248명을 대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진로개발역량 사이에서 '사회적지지'에 대한 매개효과를 실증 분석한 결과 부분매개효과 있음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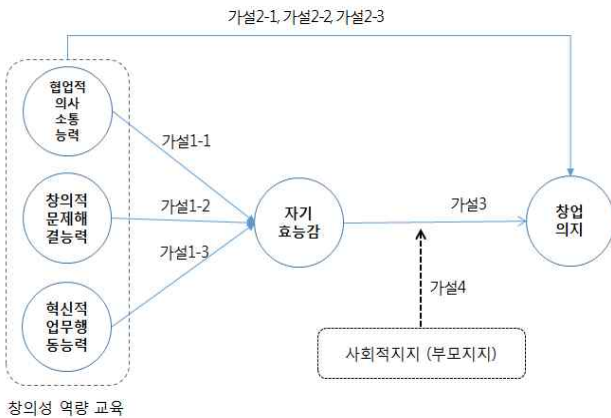
정대용·서장덕(2016)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기업의 생존과 더불어 사회적 자본 확보에 대한 연구로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사회적지지를 매개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한 결과 사회적지지가 부분매개 효과를 갖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따라서 대학 창업교육의 효과에 대해서 검증함에 있어서 사회적지지 차원에서 부모의 지지 여부가 창업의지에 어떠한 조절효과와 영향력을 미치는지 본 연구에서는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모형 및 가설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창의성역량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가설을 설정하고,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역시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며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사이에 부모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에 대해서 조절효과에 대해서 실증 분석을 하여 <그림 1>의 연구모형과 같이 크게 네가지 가설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2 창의성역량과 자기효능감

창업교육을 통하여 다양한 역량 중에서 특히 창의성역량을 고취하는 가장 적절한 교육이다. 팀 중심으로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 PT 발표,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문제해결력, 효과적인 방법 등을 훈련, 교육을 주로 활발하게 시킨다. 김경은(2015)은 창의성 교육이 지속적으로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다. 창업교육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Peterman & Kennedy, 2003). 김병남·박경선(2015)의 연구에서 창의성의 대안적 해결력, 관계적 개방성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연구결과 밝혔다. 이상직·박재춘(2015)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 미친다고 연구결과를 주장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자기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분석을 하고자 다음가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1: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 역량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 1-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 1-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 1-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3.3 창의성역량과 창업의지

대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에서 창의성역량을 통하여 4차산업혁명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 인재 육성을 하고자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박주연(2013)의 연구에서 창의성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의 영

향을 미치며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주장하였다.

McClelland(1962)는 성취 욕구가 높은 사람은 어려운 목표에 대해 문제해결을 위한 위험을 감수하고 성과를 창출하면 세부적인 피드백 원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현경·이일한(2016)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창의성의 독창성 도전성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정두식(2012)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교육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데 창업교육 횟수, 창업교육에 대한 경험 여부가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Ertuna & Gural(2001)은 일반적으로 창업교육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창업의지를 촉진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대학에서 창업교육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는 창의성 역량교육이 실질적으로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 분석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 역량 교육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 2-1: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 2-2: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 2-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3.4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본적으로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대학생들의 진로의 새로운 측면에서 창업을 준비하고 하는 창업의지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현경·이일한(2016)은 전문대학교 대학생을 265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혔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한 안태욱·이인아(2017)은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과업도전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밝혔다.

양준환(2014)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 교육과 창업의도 사이에서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실증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3: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다.

3.5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조절효과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가 필요하며,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다양한 파급 효과에 대한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 창업 친화적인 환경과 사회 안전망을 정책적으로 구축 해야한다. 하지만 불투명한 경제상황에서 젊은 대학생들은 친취직적이고 도전적인 삶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엘빈토플러)는 한국의 학생들이 사라질 직업에 하루에 10시간 이상 소중할 시기와 노력을 허비하고 있다며 한국사회 교육이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으로 젊은 청년들이 창의력과 함께 도전정신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대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지지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이상희(2012)는 대학생 427명(남학생 253명, 여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이에서 부모진로 지지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에 실질적으로 창업에 있어서 김성훈·남정민(2016)의 연구에 의하면 창업에 대해서 부모의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창업가의 창업의지도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연구 결과를 밝혔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창업에 대한 인식이 자식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함에 있어 부모지지에 대해 조절변수로 사용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에 부모의 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청년창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의 사회적지지에 대한 탐색적 연구의 차원으로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4: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간에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는 조절효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IV. 연구방법

4.1.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설정 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실증적 검증을 위해 전국의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창업교육을 수강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 자료

수집을 수행하였다. 설문지는 2016년 9월 약 1개월동안 창업교육을 받은 대학생들에게 425부를 배부하여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이 미비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의 32부 설문지를 제외한 393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본 성별은 남학생이 230명(58.5%), 여학생이 163(41.5%)명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학년 구성은 1학년이 40명(10.2%) 타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이며, 98명(24.9%)의 2학년, 148명(37.7%)으로 3학년이 가장 많았고, 107명(27.2%) 4학년 순으로 분포 되었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의 전공을 살펴보면 43명(10.9%) 인문계열, 78명(19.8%) 상경계열, 157명(39.9%) 공학계열이 가장 많은 비율이며, 81명(20.6%) 자연계열, 기타 예체능 등이 34명(8.7%)순으로 확인되었다. 학생들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376명(95.7%)이 인턴,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이 있었으나, 17명(4.3%)이 전혀 경험이 없는 학생들도 있었다. 최근 대학생들은 아주 기초단계에서부터 사회경험을 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이는 학교생활함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등 다른 경험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포함된다. 설문에 응답한 표본들의 학점 분포보면 3명(0.8%)이 2.0 이하, 59명(15%)이 2.1~3.0의 학점 학생, 283명(72%)이 3.1~3.9학점으로 대부분의 학생이 이곳에 집중되어 있었고, 12.2%의 학생이 4.0 이상이어서 전반적으로 고른 분포로 형성 되어있다.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 대학마다 창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기에 수강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총 6개로 구분해서 분류했다. 첫째는 실질적인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은 129명(32.8%)으로 생각보다 높은 분포를 나타내었다. 반면 교육과정에서 학점 때문이라는 학생이 134명(34.1%)으로 나타나 수강 동기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주위 지인이나 기타 추천은 44명(11.2%)으로 나타났고, 창업분야의 교육에 수강하거나 프로그램 참여했을 시 지원 혜택이 많아서가 8명(2%), 향후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의미에서 60명(15.3%), 또한 교과목 시간표 작성에 편의상 신청한 학생들이 18명(4.6%)이었다. 그리고 본 표본을 중심으로 창업동아리 활동에 대해 기존에 경험 여부를 살펴봤더니 대략 219명(55.7%)이 창업동아리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174명(44.3%)은 전혀 창업동아리와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향후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자신만의 계획을 조사한 결과 창업 취업 144명(36.6%)으로 많았으며, 33명(8.4%)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어 여전히 창업을 자신의 진로로 생각하는 대학생은 많이 없었지만, 특이하게 자신의 진로를 취·창업 분야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216명(55%)으로 절반 이상이 창업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고 있다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4.2. 구성개념의 정의와 측정

4.2.1. 창업교육의 창의적 역량

본 연구에서는 창업교육을 통해서 함양되는 창의성 역량을

3) 2015년 방한 시 한국 사회와 교육 제도에 대한 조연 기자간담회 내용

대표적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협업적 의사소통능력,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을 선정하였다.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의 개념적 정의는 아이디어, 검토, 대안 등 다양한 의견, 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Katleen et al., 2011).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개념 정의는 당면한 문제와 환경속에서 다양한 창의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지은림·주언희, 2012).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의 개념 정의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혁신적으로 업무에 적용해 효율적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는 능력이다(Runco, 2004).

본 연구에서는 창의적 역량에 대한 선행연구(지은림·주언희, 2012; Kim, 2012; Lee, 2014; MacKinnon, 1962; John-Steiner, 2000; Runco, 2004)에서 활용된 설문을 토대로 변형조 외 (2014) 연구에 정리 사용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5문항, 협력적 의사소통능력 5문항, 혁신적 업무행동능력 5문항을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 측정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2.2.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적용하였으며 자기효능감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자신에게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치고 목표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념이다. Bandura(1997)와 홍현경(2012)의 연구에서 개발하고 사용한 문항을 참조하였고, 자기조절효능감 문항을 5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의 측정 문항들은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2.3.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지지를 조절효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개념적 정의로는 한 개인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나아가기 위해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 교수,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Nolten(1994)(Student Social Support Scale)를 김지혜(1998)가 번안하고 이현희(2008)가 재구성한 척도를 창업활동에 맞춰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는 대표적으로 교수지지, 친구지지, 부모지지로 나뉘지는데 대학생의 진로의 영역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되는 부모 지지를 대표적인 사회적지지 변수로 선정하여 본 연구에 3개문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2.4. 창업의지

창업의지의 개념적 정의는 대학생들의 진로를 자신만의 회사, 새로운 업, 비즈니스를 시작하려는 의도로써 Liñán & Chen(2009)의 다섯 개의 항목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단일 항목으로 창업의지를 묻는 척도(Kuckertz & Wagner, 2010)보다 다양한 측면의 창업의도를 측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측정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을 위해 부분최소자승법(Partial Least Squares: PLS)을 이용하는 R 패키지인 plspm이 사용되었다. PLS(Partial Least Square)는 LISREL, EQS, AMOS 등의 구조 모델 분석기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샘플 수에서도 복잡한 인과모형의 설명력을 잘 나타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의 타당성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모형과 변수의 경로와 설명력을 나타내는 구조모형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Chin, 1998). PLS에서 구조 모형의 검증은 경로계수의 크기 및 부호, 통계적 유의성, 선행 변수를 통해 설명되는 종속변수의 결정계수 값을 통하여 검증된다(Chin, 1998). 한편, 모든 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재표본(Bootstrap Resampling) 절차를 수행하였다(Cotterman & Senn, 1992).

V. 실증분석

5.1.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일반적으로 측정모형에 대한 평가는 통계검증에서 수렴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및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주로 사용된다. 수렴타당성은 구성개념에 대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와 평균분산추출(AVE: Average Variance Extracted) 등에 의하여 검증될 수 있다(Fornell & Larcker, 1981). 복합신뢰도 측정에서는 측정변수에 대해 내적 일관성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0.7 이상이 평가기준이 되며, 평균분산추출(AVE)에 대한 구성개념은 일반적으로 측정변수를 설명하는 분산에 대한 크기를 의미하며 0.5 이상이 일반적인 평가기준이 된다. 반면, 판별타당성에 대한 검증 방법은 잠재변수의 평균분산추출(AVE)이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 제곱보다 크게 되면 판별타당성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한다(Yu, 2012; Chin, 1998; Fornell & Larcker, 1981). 아래 <표 1>와 같이 측정모형의 각 차원이 AVE가 0.5 이상이 되거나, 측정모형의 표준화된 요인부하량 값이 0.63-0.91 사이(0.7 이상이 가장 바람직함), 측정된 값의 요인부하량의 t-값들이 1.965(또는 2.0) 이상일 때 유의하기 때문에(유의수준 0.05, t-값/CR(Critical Ratio) >1.965, p<0.05) 본 연구에서는 집중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Yu, 2012; Bagozzi & Yi, 1988; Fornell & Larcker, 1981; Hair et al., 2012). 아래 <표 1>에서 t-값은 부트스트래핑(표본 수 500)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들이다. 또한 <표 2>와 같이 측정모형의 경우에는,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행렬에서 가장 큰 상관계수인 0.679(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간의 상관계수)의 제곱인 (0.679)²=0.461보다 잠재변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의 AVE(0.644)와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AVE(0.633)가 모두 크기 때문에 판별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u, 2012; Fornell & Larcker, 1981; Hulland, 1999).

<표 1> 잠재변수에 대한 표준 요인부하량, 요인부하량 t값 및 신뢰성 지수

| 잠재변수 | 측정항목 | 표준화요인 부하량 | 표준 오차 | t값 | Composite Reliability | Cronbach α | AVE |
|-------------|----------------------------------|-----------|-------|--------|-----------------------|------------|-------|
|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창업교육으로 팀원들과 협업 진행하는 능력을 쌓을 수 있었다 | 0.868 | 0.017 | 51.106 | 0.926 | 0.900 | 0.714 |
| | 창업교육으로 문제해결할때 팀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다 | 0.867 | 0.017 | 50.391 | | | |
| |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팀원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다 | 0.849 | 0.017 | 50.547 | | | |
| | 교육을 통해 팀원들의 아이디어 제안을 잘 받아들이게 되었다 | 0.810 | 0.024 | 33.890 | | | |
| | 팀원들과 과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을 즐기게 되었다 | 0.830 | 0.025 | 32.721 | | | |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여러 각도로 생각 하도록 교육받았다 | 0.800 | 0.021 | 37.760 | 0.901 | 0.862 | 0.644 |
| |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때 여러가지 대안을 생각하게 되었다 | 0.812 | 0.022 | 36.529 | | | |
| |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모아 타당한 결론을 이끌수 있게되었다 | 0.823 | 0.021 | 39.905 | | | |
| |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예상할 수 있게되었다 | 0.825 | 0.018 | 44.668 | | | |
| | 발생한 어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었다. | 0.752 | 0.030 | 25.073 | | | |
|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창의적 아이디어를 현실적 결과물로 만들도록 교육받았다 | 0.805 | 0.024 | 33.181 | 0.896 | 0.855 | 0.633 |
| | 참신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꾸준히 제안하도록 교육받았다 | 0.849 | 0.020 | 43.238 | | | |
| | 어떤 일을 할때 다양한 도구나 기법을 활용하도록 교육받았다 | 0.824 | 0.022 | 36.881 | | | |
| | 일 처리방식에서 나만의 아이디어가 반영하도록 교육받았다 | 0.754 | 0.042 | 18.159 | | | |
| | 현재 소속(학교)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도록 교육받았다 | 0.742 | 0.036 | 20.447 | | | |
| 자기 효능감 | 나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0.809 | 0.026 | 30.816 | 0.855 | 0.786 | 0.539 |
| | 어떤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맞게 잘 진행한다 | 0.630 | 0.052 | 12.093 | | | |
| | 일이 잘못될 방향으로 진행될 때 빨리 바로 잡을 수 있다 | 0.691 | 0.044 | 15.628 | | | |
| | 맡겨진 일을 처리하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다 | 0.703 | 0.043 | 16.410 | | | |
| | 어려움이 있을때도 포기하지않고 잘 조율하면서 노력한다 | 0.820 | 0.020 | 41.759 | | | |
| 사회적 지지 | 부모님은 내가 하는 창업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 0.791 | 0.052 | 15.210 | 0.839 | 0.706 | 0.613 |
| | 부모님은 내가 잘한 일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다 | 0.788 | 0.055 | 14.248 | | | |
| | 부모님은 내 생각을 존중해 주신다 | 0.769 | 0.056 | 13.828 | | | |
| 창업의지 | 나는 창업교육을 받은 후 창업을 해볼 생각을 한적 있다. | 0.865 | 0.024 | 36.696 | 0.935 | 0.912 | 0.743 |
| | 나는 창업교육 이후 창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 0.907 | 0.014 | 64.226 | | | |
| | 나는 창업교육 받은 후 창업에 대한 열정이 생겼다. | 0.903 | 0.012 | 76.505 | | | |
| | 나는 창업교육 받은 후 창업에 대한 실행가능성이 생겼다. | 0.871 | 0.018 | 48.067 | | | |
| | 창업교육 받은 후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 0.753 | 0.030 | 25.094 | | | |

<표 2> 잠재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 변수 | 1 | 2 | 3 | 4 | 5 | 6 | |
|----|-------------|-------|-------|-------|-------|-------|-------|
| 1 |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0.845 | | | | | |
| 2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0.628 | 0.803 | | | | |
| 3 |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0.631 | 0.679 | 0.796 | | | |
| 4 | 자기효능감 | 0.327 | 0.359 | 0.311 | 0.734 | | |
| 5 | 사회적지지 | 0.315 | 0.353 | 0.273 | 0.230 | 0.783 | |
| 6 | 창업의지 | 0.348 | 0.391 | 0.374 | 0.254 | 0.320 | 0.862 |

주: 대각선에 제시되어 있는 값은 AVE의 제곱근

5.2 구조모형의 경로분석

5.2.1 구조모형의 적합도 및 설명력

PLS는 내생변수 설명력 최대화이며, 분산설명력 최대화 또는 구조오차 최소화가 목적이며 AMOS나 LISREL 등을 사용한 공분산구조모형에서 사용되는 적합도 지수가 사용되지 않는다(Chin, 1998; Vinzi et al., 2010).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예측적합도와 함께 전반적 적합도를 통하여 판단한다(Chin, 1998; Hulland, 1999; Tenenhaus et al., 2005).

첫째, 일반적 예측적합도는 내생변수의 설명력에 대해서 나타내는 지수를 결정계수 R²값으로, 상(0.26 이상), 중(0.13~0.26), 하(0.02~0.13) 세등분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내생변수의 R²값을 살펴보면 자기효능감 0.15, 창업의지 0.22로 나타나 구조모형의 적합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에 대해서는 모든 내생변수의 R²의 평균과 함께 각 차원들에서 공통성 평균을 곱한 값에 제곱근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상(0.36이상), 중(0.25~0.36), 하(0.10~0.25)등으로 세분류로 구분하여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 구조모형의 전반적 적합도(Goodness-of-Fit Index)는 .346로 나타났고, GoF의 평가기준 중간 정도인 것으로 본 연구의 구조모형 적합도가 일반적인 측정 기준에 합당함으로 연구에 활용해도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5.2.2 가설검증

본 연구는 구조모형의 적합성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구조모형에 대한 각 경로의 실질적인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재표본 절차를 수행하였고, 각 연구가설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재표본 기법은 표본

자료로부터 복원추출에 의해 동일한 분포를 갖는 측정치를 추정하는 방법으로서 PLS 경로모형에서 주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Cotterman & Senn, 1992).

본 연구에서는 PLS Algorithm을 통해 얻어진 표준화된 경로 계수값과 더불어 PLS Bootstrapping(표본 수 500)을 통해 나온 경로계수 t-값을 산출한 유의성 검증 결과에 대해서 아래의 <표 3>에 간략히 요약하였다. 방향성 가설에 대한 단측검증이기 때문에, 유의수준 $\alpha=.05$ 에서 $|t| > 1.645$ 이면 경로계수와 가설이 유의하다(Yu, 2010).

<표 3> 가설설검증결과

| | 경로 | 경로계수 | 표준오차 | t-값 | 검증결과 |
|-------|---------------------|-------|-------|-------|------|
| 가설1-1 |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자기효능감 | 0.143 | 0.074 | 1.945 | 채택 |
| 가설1-2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자기효능감 | 0.221 | 0.071 | 3.117 | 채택 |
| 가설1-3 |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자기효능감 | 0.071 | 0.078 | 0.098 | 기각 |
| 가설2-1 |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 → 창업의지 | 0.076 | 0.063 | 1.206 | 기각 |
| 가설2-2 |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 → 창업의지 | 0.146 | 0.072 | 2.036 | 채택 |
| 가설2-3 |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 → 창업의지 | 0.150 | 0.074 | 2.016 | 채택 |
| 가설3 | 자기효능감 → 창업의지 | 0.087 | 0.051 | 1.731 | 채택 |
| 가설4 | 자기효능감*사회적지지 → 창업의지 | 0.133 | 0.069 | 1.934 | 기각 |

가설 1-1을 검증한 결과,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t=1.945$)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며 이는 안태욱(2017)의 연구결과 일치한다. 가설 1-2을 검증한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t=3.117$)이 자기효능감에 통계적으로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며 이는 안태욱(2017)의 연구결과 일치한다. 가설 1-3을 검증한 결과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t=0.098$)이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혁신적 업무행동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안태욱(2017)의 연구결과 일치한다.

또한 <표 2>에서 나타난 혁신적 업무행동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계수가 다른 능력에 비해 작기 때문에 관련성이 낮고, 서로간의 영향력이 작다고 추론 할 수 있다. 가설 2-1을 검증한 결과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t=1.206$)이 창업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협업적 의사소통능력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2>에서 나타난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업의지와의 상관관계 계수가 다른 능력에 비해 작아 관련성이 적고, 서로간의 영향력이 작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

설 2-2를 검증한 결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t=2.036$)이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가설 2-3을 검증한 결과 혁신적 업무능력($t=2.016$)이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는 혁신적 업무능력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t=1.731$)이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는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이는 이현경·이일환(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가설 4인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LS에서 조절효과의 크기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는 상호작용항이 없는 경우와 상호작용항이 있는 경우의 설명력 비교를 통해서 조절효과를 언급할 수 있으며, 조절효과지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Chin 1998).

$$f^2 = \frac{R_2^2 - R_1^2}{1 - R_2^2}$$

여기서, f^2 = 조절효과지수

R_1^2 = 주효과모델(상호작용항포함미전모델)의 설명력

R_2^2 =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모델의 설명력

조절효과의 해석은 계산된 값이 0.35 이상일 경우 상의 효과, 0.15는 중간, 0.02 이하 일 때 소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Cohen & Hoberman, 1998).

본 연구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서 적합성 f^2 검정을 실시했으며, 가설 4인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조절효과의 크기를 검증한 결과 f^2 의 0.008로 나타나 조절효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 0.02$), 다음으로 경로간 유의성 검증을 하였으며, t값은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1.96이 된다(Hair et al., 1992).

검증한 결과 사회적지지(부모지지)는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조절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4는 기각되었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집단이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높으면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절효과의 크기를 살펴보면 약하게 나타나지만 경로간 유의성을 검증결과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높이지 않는다고 추측해볼 수 있다.

참고로 조절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강하기 위해 아래 <표 4>에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평균값을 추가로 비교 정리하였다.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M=3.770)이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M=3.684)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의 창업의

지의 평균값을 비교하면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M=3.672)이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M=3.31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사회적지지 집단별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 평균값

| 집단 | 자기효능감 | | 창업의지 | |
|--------------|-------|-------|------|-------|
| | N | 평균 | N | 평균 |
|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 | 218 | 3.684 | 218 | 3.316 |
|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 | 175 | 3.770 | 175 | 3.672 |

VI. 결론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한 목적과 함께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위해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창업교육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역량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창업의지에 미치는 효과와 대학생의 창업을 위한 진로측면에서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역할과 효과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창의성 역량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에 대해서 심도 있는 분석을 위해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조절효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창업교육을 통한 창의성 역량의 효과에서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책적 함의와 방향성이 요구되는지 실증 연구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성 역량 교육이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1은 부분적으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협업적 의사소통능력과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정(+)의 유의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 가설 1-1, 1-2는 채택되었다. 하지만 가설 1-3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여 연구결과 기각되었다.

둘째, 창의성 역량 교육이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2는 역시 부분적으로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혁신적 업무행동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2, 2-3은 채택되었다. 하지만 가설 2-1인 협업적 의사소통 능력은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어 기각되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창업의지에 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3은 채택되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으로 자기효능감이 높아짐으로써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창업의지에 긍정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결과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가설 3의 가설 검증 결과에서 개인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정(+)의 긍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가설 4의 경우 사회적지지(부모지지)의 조절변수가 개입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과 사회적지지가 낮은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창업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사회적지지(부모지지)가 낮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로 인하여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대학 창업교육에 있어서 보다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확대 및 집중 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역량을 함양함으로써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일부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최근 대학생들은 타인과의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혼자서는 잘하는데 팀으로 했을 때는 역량 발휘와 성과를 도출하기 힘들어한다. 팀창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팀 단위로 의사소통하는 역량이 많이 떨어진다. 특히 대학 창업교육에서는 반드시 팀으로 협업하며 의사소통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창의성 교육이 더욱 요구된다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창업 도전을 하고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창업 실패에 대한 안전망과 함께 사회적 전반적으로 사회적 지지 차원에서 창업에 대해 후호적 지원이 필요가 하다. 특히 대학생의 진로결정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의 협력적 차원에서 사회적지지가 대학생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창업교육이다(Diffley, 1982).

그럼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마다 우선적으로 부모님을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인식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서 대학에서 실질적인 학생 창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중요한 연구 자료와 대학 창업교육의 방향성 설정에 기초자료로 의미있게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창의성 역량 교육을 통한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일반화 시킬 수 없다. 창업교육을 통해서만 자기효능감이 높아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표본 샘플이 창업교육을 받은 대상자를 하였지만 본 연구의 학생 표본이 전체 대학생을 대표 할 수 없기에 일반화의 오류에 대한 한계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향후 대학창업 교육을 활성화하고 보다 실질적인 청년 창업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책적 함의와 올바른 방향성에 제시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 의의를 가진다.

REFERENCE

- 김경옥·조윤희(2011).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18(4), 197-218.
- 김경은(2015). 예비유아교사를 위한 창의성교육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289-303
- 김경재(2016). *창업교육이슈페이퍼 보고서*,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재)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 김문희(2016).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OECD 논의 동향 및 사례* 글로벌 리포트
- 김병남·박경선(2015). 대학생의 일상적 창의성이 기업가정신, 창업의지 및 창업탐색활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4), 57-84.
- 김용호·김종근(2016). 청소년의 신문활용교육 (NIE) 이 기업가정신 및 진로인식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11(5), 153-164.
- 김성훈·남정민(2016). 대한민국 창업생태계 현황 및 인식 연구. *벤처창업연구*, 11(6), 175-183.
- 김재호(2013). *사회적창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적 프로세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1998). 청소년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재윤·이유경(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9(4), 99-116.
- 박재환·안태욱(2016). 대학생 창업교육 특성과 창업의지의와의 관계 연구: 전공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경영교육연구*, 31(5), 1-24.
- 박재환·최명길·김용태(2010). 단기 창업교육프로그램 교육성과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1(3), 1085-1094.
- 박주연(2013). *자기주도학습, 창의성,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변영조·김명숙·양영석(2014). 청소년 창업교육프로그램 효과성 측정지표 개발 연구. *벤처창업연구*, 9(4), 77-85
- 안태욱(2017). *대학 창업교육의 창의성 역량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안태욱·이인아(2017). 멘토링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을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141-160.
- 양준환(2014). 기업가정신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9(6), 65-77.
- 이경화·유경훈·김은경(2010). 대학생의 창의성 교육에 대한 인식. *교육심리연구*, 24(2), 327-346.
- 이상직·박재춘(2015). 예비 청년창업가의 개인 창의성, 감성지능, 기업가정신 및 창업의지의 관계. *한국부패학회지*, 20(4), 95-116.
- 이상희(2012).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진로태도성숙의 관계: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와 부모진로지지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3), 1461-1479.
- 이성원(2014). *기업 상담을 위한 적응적 창의성 측정도구의 개발 및 타당성*,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우진·김진수·김용태(2013). 대학의 창업교육 품질이 교육만족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연구*, 28(3), 105-131.
- 이현경·이일한(2016). 대학생의 개인 창의성과 자기효능감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1(3), 111-120.
- 이현희(2008). *전문계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지가 진로 미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연호·양동우(2008). 창업의지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연구-경력지향성과 사회문화적인요인 그리고 창업지원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21(5), 2347-2368.
- 정대용·서장덕(2016). 중소기업 기업가의 성격특성과 셀프리더십이 사회적 지지를 매개로 사회적 자본 확보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31(5), 305-328.
- 정두식(2012). 대학생의 창업교육 선호도와 창업의지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교육연구*, 27(6), 373-394.
- 지은림·주인희(2012). 창의적 인재 역량 측정을 위한 구인 탐색 및 척도 개발. *교육평가연구*, 25(1), 69-94.
- 홍현경(2012). *자기효능감이 직무 착근도, 혁신행동과 조직구성원 행동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내 특 1급 호텔 근무형태에 따른 조절효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한국교육개발원(2011). *21세기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미래 전략 연구*. 한국교육개발 연구보고, RR2011-01
- 황성용(2013). *자기성장 창의성 프로그램이 성인학습자의 창의성과 창의적 리더십에 미치는 효과*.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hn, T. U.(2017). *The Influence of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s Creativity Capacity to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The Mediation Effect of Entrepreneurship and Self-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Ahn, T. U., & Lee, I. A.(2017). The Effects of Mentoring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College Start-up Clubs Activity Moderating Effects.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31(3), 141-160
- Amabile, T. M.(1989). *Growing up Creative: Nurturing a Lifetime of Creativity*. Crown House Publishing Limited.
- Ajzen, I.(1991).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Bandura, A.(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US:Prentice Hall.
- Bandura, A.(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2), 117-148.
- Bagozzi, R. P., & Yi, Y.(1988). On the Evaluation of Structural Equation Models,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16(1), 74-94.
- Byun, Y., Kim, M. S., & Yang, Y. S.(2014). The Study of Metrics development for Entrepreneurial Program Effectivenes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4), 77-85.
- Chen, C. C., Greene, P. G., & Crick, A.(1998). Does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Distinguish Entrepreneurs

- from Manager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4), 295-316.
- Chi, E. L., & Ju, U. H.(2012). Exploring the Construct and Developing the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Creative Leader Competency.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5(1), 69-94.
- Chin, W. W.(1998). *The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for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G. A. Marcoulides (Ed.), *Methodology for Business and Management*. Modern Methods for Business Research (pp. 295-336).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hung, D. Y., & Seo, J. D.(2016). The Effect of SME Entrepreneurs' Personality Traits and Self-leadership on Social Capital Mediated by Social Support. *Korean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31(5),305-328
- Cohen, S., & Hoberman, H. M.(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99-125.
- Cotterman, W., & Senn, J.(1992). Challenges and Strategies for Research in Information Systems Development, Chichester, John Wiley&Sons.
- De Bono, E.(1995). Serious Creativity. *The Journal for Quality and Participation*, 18(5), 12-18.
- Diffley, J. H.(1982). *A Study of Women Business Owners and the Importance of Selected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Related to Educational Programs*, Doctoral Dissertation.
- Ertuna, Z. I., & Gurel, E.(2011). The Moderating Role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Training*, 53(5), 387-402.
- Etzkowitz, H.(2011). The Triple Helix: Science, Technology and the Entrepreneurial Spirit. *Journal of Knowledge-based Innovation in China*, 3(2), 76-90.
- Fornell, C. & Larcker, D.(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Hair, J., Sarstedt, M., Ringle, C. & Mena, J.(2012). An Assessment of the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Marketing Research,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40(3), 414-433.
- Hong, H. K.(2012). The Effects of Self-efficacy on Job Embeddedness, Innovation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s.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Hulland, J.(1999). Use of Partial Least Squares (PLS) in Strategic Management Research: A Review of Four Recent Stud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0(2), 195-204.
- Hwang, S. Y.(2013) *The Effects of Self-Growth Creativity Programs on Creativity and Creative Leadership of Adult Learners*.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 Isaksen, S. G., Puccio, G. J., & Treffinger, D. J.(1993). An Ecological Approach to Creativity Research: Profiling for Creative Problem Solving. *The Journal of Creative Behavior*, 27(3), 149-170.
- Jin, M.(2011). Future of Occupation and Creative Career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ference of Korea Association of Education
- John-Steiner, V.(2000). *Creative Collabor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Jung, D. S. (2012). An Empirical Study on Business Start-up Education Preferences and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27(6), 373-394.
- Katleen, E. M., Susan, J. A., & Dirk, B.(2011). Self-regulation of Creativity at Work: the Role of Feedback-seeking Behavior in Creative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54(4), 811-831.
- Kift, S., Israel, M., & Field, R.(2010). Learning and Teaching Academic Standards Project: Bachelor of Laws Learning & Teaching Academic Standards Statement December 2010, Australian Learning & Teaching Council.2017 from <http://www.olt.gov.au/resources/good-practice?text=threshold%20learning%20outcomes%20law>
- Kim, B. N., & Park, K. S.(2015). The Influence of Everyday Creativity on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ial Intention, and Entrepreneurial Exploration Activiti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5(4), 57-84.
- Kim, J. H.(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yst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aster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 Kim, J. H.(2013). *The Effects of Social Entrepreneurship and the Social Support on Entrepreneurial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Kim, K. E.(2015). The Longitudinal Effect of the Creative-Fostering Program for Pre-early childhood Teacher on their Problem Solving Ability and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1(1), 289-303.
- Kim, K. E.(2012). Development of Social Studies Lesson for Creativity and Character Education Focused on Key Competencies: Problem-solving based on Empathic Activity. *Social Studies Education*, 51(3), 87-101
- Kim, K. W., & Cho, Y. H.(2011).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Career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among Freshm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197-218.
- Kim, Y. H., & Kim, J. G(2016). Impact of NIE on Entrepreneurship and Career Awareness in Adolescent: Mediated Effect of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5), 153-164.
-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2011). A Study on the Future Strategy of Education for Cultivating Creative Talent in the 21st Century. Han'guk Kyoyuk Kaebawön, RR2011-01
- Kuckertz, A., & Wagner, M.(2010). The Influence of Sustainability Orient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vestigating the Role of Business Experie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5(5), 524-539.
- Latham, G. P., Winters, D. C., & Locke, E. A.(1991). *Cognitive and Motivational Mediators of the Effects of*

- Participation on Performance*.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Toronto.
- LEE, H. H.(2008). *Impacts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Career Indecision level for Technical High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Dankook University.
- LEE, H. K., & Lee, I. H.(2016). The Study of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reativity and Self-efficac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1(3), 111-120
- LEE, K. H., YU, K. H., & Kim, E. K.(2010). The University Students' Perception on Creativity Education.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2), 327-346.
- Lee, S. H.(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tres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the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Parent-Related Career Support. *Korea Journal of Counselling*, 13(3), 1461-1479.
- Lee, S. J., & Park, J. C.(2015).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Emotional Intelligence,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Korean Association for Comupion Studies*, 20(4), 1-22.
- Lee, S. W.(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Adaptive Creativity Inventory for Workplace Counseling*,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 Lee, W. J., Kim, J. S., & Kim, Y. T.(2013). An Empi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Quality and Satisfaction to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Korea Association of Business Education*, 28(3), 105-131.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2000). Contextual Supports and Barriers to Career Choice: A Social Cognitive Analysi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36-49.
- Lipp, C.(2013). The Four Cs of 21st Century Skills. Zuluma Education Trends. 2017 from <http://zuluma.com/education-trends/four-cs-21st-century-skills/#.VLEHY2SUdew>
- Liñán, F., & Chen, Y. W.(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MacKinnon, D. W.(1962). The Personality Correlates of Creativity: A Study of American Architects.
- McClelland, D. C.(1962). Business Driveand National Achievement. *Harvard Business Review*, 40(4),99-112.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Nolten, P. W.(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s Offi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WI: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Park, J. W., & Ahn, T. U.(2016). A Study of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Education Characteristic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Major Satisfaction. *Korean Business Education Review*, 31(5), 1-24
- Park, J. W., Choi, M. G., & Kim, Y. T.(2010). An Empirical Study on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Performance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Focused on Short Program of Local Govern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1(3), 1085-1094.
- Park, J. Y.(2013). *A Study on the Effect of College Students' Self-Directed Learning, Creativity, Personal Relationship in Regards to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Preparation Behavior*. Doctoral dissertation, Kwan-dong University.
- Peterman, N. E., & Kennedy, J.(2003). Enterprise Education: Influencing Students' Perceptions of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8(2), 129-144.
- Piascik, D.(2015). Preparing America's Students for College and Career: Common Core Learning Standards. 2 0 1 7 f r o m <http://www.mspiascik.weebly.com/common-core-learning-standards.html>
- Runco, M. A.(2004). *Everyone has Creative Potential*. In R. J. Sternberg, E.
- Ryu, J. Y., & Lee, Y. K.(2012). Influence of Adolescents' Career Preparation Behavior upon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9(4), 99-116.
- Shapero, A.(1984). The Entrepreneurial Event, in C. A. Kent, Environment for Entrepreneurship, Lexington, MA: D C Health 2140
- Shartland, A., Kreider, H., & Erickson-Warfield, M.(1994). Preparing Teachers to Involve Parents :A Nationalsurvey Ofteacher Education Programs. Cambridge, MA: Harvard Family Research Project
- Tenenhaus, M., Vinzi, V., Chatelin, Y. & Lauro, C.(2005). PLS Path Modeling, *Computational Statistics & Data Analysis*, 48(1), 159-205.
- Torrance, E. P.(1974). *Torrance Tests of Creative Thinking: Directions Manual and Scoring Guide(Verbal Test Booklet A)*. Scholastic Testing Service. Inc.
- Vinzi, V. E., Trinchera, L., & Amato, S.(2010). *PLS Path Modeling: From Foundations to Recent Developments and Open Issues for Model Assessment and Improvement*. Handbook of Partial Least Squares (Springer Handbooks of Computational Statistics), 171-193.
- Vygotsky, L. S.(2004). Imagination & Creativity in Childhood. *Journal of Russian & East European Psychology*, 42(1), 7-97.
- Wennekers, S., van Wennekers, A., Thurik, R., & Reynolds, P.(2005). *Nascent Entrepreneurship and the Level of Economic Develop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24(3), 293-309.
- Yang, J. H.(2014). Effect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otivation. *Asia-Pacific Journal of*

-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9(6), 65-77.
- Yu, J. P.(2012).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Concepts and Understanding, Hannarae Publishing Co.
- Zimmerman, B. J.(2000). Attaining Self-regulation: A Social Cognitive Perspective, In Boekaerts, M., Pintrich, P. R., & Zeinder, M.(Eds.). Handbook of Self-regulation. CA: Academic Press.
- Yu, Y. H., & Yang D. W.(2008). An Empirical Study of Factors Affec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Career Orientation, Social & Cultural Perception, and Entrepreneurial Support Programs. *The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1(5), 2347-2368.

A Study on the Effects of Creativity Competency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Social Support through Parent Cooperation

Ahn, Tae-Uk*
Lee, Il-Han**
Park, Jae-Whan***

Abstract

The role of traditional universities has been emphasized as a career path to advance into society. Recently, it has become a new paradigm of university education by emphasizing entrepreneurship as a career aspect. While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constantly expanding for college students, relatively few young people choose to start their own business. Despite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continuing to expand the university's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re are very few achievements that lead to actual entrepreneurship and student start-up. There is still a lack of research on ways to cultivate creative talents and increase practical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ffects of creativity competency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were analyzed. The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parent support) betwee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is study used 393 samples in August 2016 for university students who received entrepreneurship educ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bility of communicative communication and creative problem solving had a positive effect on self-efficacy. On the other hand, innovative work behavior abilities did not directly affect self-efficacy. In addition, creative problem solving ability and innovative work behavior 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n the other hand, the ability to communicate in a collaborative manner has no direct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In addition, self-efficacy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inally, the adjustment effect of social support (parent support) betwee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has no effect.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empiricall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creativity capacity through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the result of meaningful research that the social support through cooperation of parents is indispensable in order to increase the actual starting will of college students. Therefore, universities need to establis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for their parents in order to increase the willingness of college students to start-up. This study can be used as a meaningful basic data for establishing policy for student start - up and suggesting the right direction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Keywords: Entrepreneurship Education, Creativity Competence, Self-Efficacy, Entrepreneurial Intention, Social Support (Parent Support)

* Entrepreneurship Professor, Kunsan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gyver003@hotmail.com

** Assistant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Second Author, lih2114@cau.ac.kr

*** Professor, Chung-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jaypark@cau.ac.kr